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7월 9일(금)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 생활방역팀장 박용택 ☎440-7827 • 담당자 함춘영 ☎440-7828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7.12~7.2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 제한 등 -

-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자제 당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수도권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논의해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18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하게 된다. 행사도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명까지 허용된다.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 활동만 가능하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며,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또한,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다만, 지난 21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속 유지된다.

박남춘 시장은 “전국의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어 정부와 함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하게 됐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이번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고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당부했다.

<붙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p>▶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p> <p>▶ 운영시간: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p> <p>▶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p>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펍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